

오월, 가장 특별한 선물은 바로 당신

In May, the most special gift is YOU

글. 정이숙 Jeong, Yisuk | 카피라이터 | (주)프랜티브 이사

5월의 달력을 넘겼다. 징검다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고 유난히 많은 기념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5월 첫 날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19대 대통령 선거일, 유권자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18민주화 운동기념일,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부부의 날, 방재의 날 그리고 31일 바다의 날까지 5월의 거의 반이 특별한 날이다. 어떤 날은 어렸을 적에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다. 다른 어떤 날은 입 밖에 내서 말하면 좌파로 몰릴 수도 있었던 날이다. 또 다른 날은 평생 한 번 떨리는 마음으로 기념하던 날이다. 그 중 어떤 날은 애뜻하게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의무감으로 선물을 사기도 한다. 더 많은 날들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흘러 보낸다.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어린이날, 나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아이에게 작은 선물과 카드를 건넸다. '대학 졸업해서 독립할 때까지는 어린이날 선물 해줄게'라고 약속까지 했다.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훌쩍 자라 엄마 손길이 필요 없는 어른이 되는 것이 조금은 섭섭해서 한 행동이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어린이날 선물 뭐 사줄까?'하고 물었다. 꼭 필요한 운동화나 바지 한 벌을 사주면서 '이거 어린이날 선물이야!'라고 생색을 내기도 했다. 다 큰 청년이 된 아이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엄마의 역지를 기꺼이 받아 주었다.

여기 어린이날을 기념할 레고 TVCM이 있다. 광고에는 엄마나 아빠와 놀고 있는 아이들이 등장한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아빠의 몸을 테이프로 감아 바닥에 붙인다.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소인들이 걸리버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가는 동화책의 그림과 비슷하다. 다음 화면에는 아빠의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는 딸아이가 등장한다. 아빠는 분홍색 발레복을

입과 딸과 함께 발레 동작을 하기도 한다. 광고는 부모와 아이가 물안경을 끼고 커다란 종이 박스에 들어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내고, 침실 벽과 천장에 야광 별을 가득 붙이고 누워 우주에 있는 기분을 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아이와 같이 놀면서 부모는 동심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활짝 웃는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흐른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아이에게 ‘함께 있는 시간’을 선물하라고.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부모와 함께 노는 시간이 귀중한 선물이라는 뜻이다.



레고 TVCM 스토리보드(2016. 5월)

카피는 잊어버렸던 상상의 세상을 아이랑 놀면서 다시 경험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자막) 너에게 배운다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법을
 새로운 나를 만나는 법을
 종이박스로 세계여행 하는 법을
 침실을 우주정거장으로 바꾸는 법을
- NA) 아이가 없었다면 몰랐을 세상,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애들아!
- 자막) THANK YOU, KIDS
- NA/자막) 이번 어린이날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레고 TVCM 카피(2016. 5월)

사무실에 매여 있느라 방치했던 내 아이의 어린 시간들이 아프게 떠오른다. 유난히 야근과 휴일 근무가 많은 엄마를 둔 탓에 내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도우미의 손에 맡겨져야 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일터에 있는 많은 저녁을 돌보는 이 없는 집에서 저희들끼리 보내기도 했다. 어린이 날이라고 예외였을 리가 없으니, 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지 못하는 엄마였다.

이번에는 어버이날에 만들어진 한 축 체인점의 인터넷 바이럴 영상을 보자. 참가자를 선정해 부모님을 위해 정성 가득한 한 끼를 직접 준비하게 하고, 그 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은 4분 50 초나 되는 긴 영상이다. 영상은 처음에 자식들에게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 했냐고 묻는다. 현금을 좋아하신다는 대답,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대답이 나온다.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냐고 묻는다. 자식들의 전화를 받은 수 화기 너머의 엄마와 아빠들은 예외 없이 ‘필요한 게 없다’거나, 자식에게 좋은 일이 선물이라고 말한다. 자식의 존재가 이미 선물이라고 말하는 아빠도 있다.



본죽 바이럴 영상 스토리보드(2016. 5월) - 1

- NA) 어버이 날 특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딸1) 현금을 좋아하셔서...
 아들1)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딸2)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딸3) 명품 백...

- 아들2) 직접 쓴 편지하고 식사 한 끼…
 딸3) 몸에 지닐 수 있는 물건…
 딸4) 그래도 현금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NA) 부모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딸1) 곧 있으면 아버지 날이잖아?
 아들2) 필요한 거?
 엄마10.V) 없어.
 아빠10.V) 꽃이나 하나 달아 줘.네가 만들어서.
 아빠20.V) 희소식!
 아들1) 저의 희소식?
 아빠20.V) 응
 엄마20.V) 그냥 뭐 너랑 데이트라도 하면 되지.
 아빠30.V) 풀잎이 자체가 선물인 걸!

본죽 바이럴 영상 카피(2016. 5월) - 1

질문과 대답이 끝난 뒤, 2명의 딸은 부모님을 위해 죽을 만든다. 엄마를 나오라고 해놓고 레시피를 적은 노트를 보며 서툴게 재료를 썰고 볶고 끓이는 자식들. 죽을 끓이며 레시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거기에는 참가자의 엄마가 손수 적은 손편지가 들어 있다. ‘사랑하는 딸’이라



본죽 바이럴 영상 스토리보드(2016. 5월) -2

는 엄마의 글씨를 보자마자 딸들의 눈가에는 대뜸 이슬이 맺힌다. ‘늘 사랑하고 너의 삶이 별 같이 빛나기를’ 바란다는 글귀에 얼굴 울음을 터트린다. 그리고 어느새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 품에 안긴다.

자막) **엄마를 위한 이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NA)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요리합니다.**

자막) **어버이날 선물이 시작됩니다.**

NA) **어머니의 특별한 선물이 시작됩니다.**

본죽 바이럴 영상 카피(2016. 5월) -2

몰래 카메라는 사실 엄마가 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엄마와 딸은 다정하게 앉아 딸이 서툴게 끓인 죽을 먹는다.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어린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어버이날, 부모님께 가장 특별한 선물은 바로 당신’이라는 메시지가 흐른다.



본죽 바이럴 영상 스토리보드(2016. 5월) -3

- 엄마O.V) 근본적으로 엄마하고 딸하고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한이 없고…
엄마 입장에서서는 늘 더 못 줘서 한이죠 뭐.
- NA) 몰래 카메라 역시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아직도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세요?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부모님께 가장 특별한 선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버이날 특별한 날을 선물하세요.
어버이날 특별한 나를 선물하세요.

본죽 바이럴 영상 카피(2016. 5월) -3

어린이날에도 어버이날에도 제일 특별한 선물은 부모가, 자식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며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비록 상업적인 광고지만 레고와 본죽의 광고를 보고 ‘어버이날 무슨 선물을 살까?’하고 고민하던 마음을 내려 놓았다. 대신 아이들과 엄마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하기로 했다. 동네 목욕탕에 가서 엄마의 등을 밀어 드릴까? 기차를 타고 엄마 고향에 다녀오는 것도 좋겠지? 내 마음 속에선 ‘영원한 어린이’인 장대 같은 아들들에게는 엄마표 파스타를 만들어 줘야겠다. 어버이날엔 할머니 댁에 같이 가는 게 엄마한테 하는 효도라고도 알려야겠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다. 따라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선물이다. 사랑하는 이에겐 ‘나’라는 특별한 선물을 아끼지 말고 퍼주는 오월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1cUHAcTVc>
레고 TVCM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OAnT-GVHaw>
본죽 바이럴 영상 유튜브 링크